

# “클래식 조예 깊은 한국인 만나 기쁘다”

유럽 3대 음악 축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홍보차 내한 슈타들러 대표  
내년 7월 20일~8월 31일 오페라·연극·콘서트 200여개 등  
2020년 출연 조성진 설명회서 연주도... 투어 패키지 마련

유럽 3대 음악 축제의 하나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홍보하기 위해 헬가 라블-슈타들러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대표가 지난 4일 한국을 찾았다. 슈타들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 삼성동 오코우드 프리미어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 일정과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슈타들러 대표는 “축제 100주년을 맞는 2020년에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WCN 제공)

5000만 원) 유로에 달했다.

내년 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6주간 열리는 축제에는 공연장 16곳에서 오페라·연극 등 199개의 공연이 열린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이도메네오’를 개막작으로 내세운 이번 축제에서는 5개의 초연작품과 2개의 콘서트오페라 등 총 42개의 오페라 공연이 관객을 기다린다. 또 55개의 연극이 상연되며 어린이 오페라와 오페라 캠프 등을 마련해 가족 단위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슈타들러 대표는 조성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피아니스트인 마르쿠스 힌터호이저 총 음악감독이 직접 조성진의 출연을 추진했다”며 “아직 연주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쇼팽 쿨루르 우송 이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조성진의 연주가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를 찾은 조성진은 200명의 청중 앞에서 열정적인 독주 무대를 선보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헬가 라블-슈타들러(왼쪽) 대표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축제를 설명하고 있다. (WCN 제공)

다. 그는 드뷔시 피아노 모음곡 ‘영상’ 중 첫 곡 ‘물의 반영’으로 문을 열고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을 20분 넘게 연주했다. 슈타들러 대표와 관객들은 연주가 끝나자마자 일어서서 “브라보”, “앙코르”를 외쳤고 조성진은 슈베르트의 ‘악몽의 순간 3번’을 무대에 올리며 예정에 없던 앙코르 연주로 화답했다.

한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한국 공식 설명회를 연 WCN(대표 송효숙)은 예

내년 8월16~24일 9일간 투어 패키지를 마련했다. 투어 패키지를 통해 개막작 오페라 ‘이도메네오’를 포함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마우로 페터-헬무트 도이치 독일 가곡 리사이틀, 카타이 부니아티시빌리 피아노 리사이틀 등을 관람할 수 있고 음악가와의 만남, 공연장 투어 등이 진행된다. 문의 02-2183-1290. /서울=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광래 작 ‘Lost&Found’

## 몸\_나주로부터 새로운 문화적 발신

나주시 나빌레라센터 31일까지 기획전

나주시 나빌레라센터가 기획전 ‘몸 (body)\_나주로부터 새로운 문화적 발신’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현대문화이론연구’ 2010년 봄호에 게재된 노양진(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몸(body)’ 논문을 기초로 김경주(동신대 공연예술과) 교수 등이 기획에 참여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하는 건 ‘몸’이다. 기획팀은 “몸은 삶의 가장 기초이자 완성체다. 몸은 몸으로서 형성과 동시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며 몸 안에서 싹을 키우고 마침내 죽음과 소멸에 몸을 내준다. 몸 그 자체인 사람이 살아만 불연속성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생각하는 삶과 몸의

형상을 다양하게 풀어내는 전시”라고 밝혔다. 전시에는 김광래(설치조각), 김희상(조소), 나명규(미디어), 박상화(미디어 설치), 이재문(섬유조각), 최은태(조각) 작가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전시에 참여하기 전 ‘몸’이란 주제로 토론을 거쳤으며 이 토론을 기초로 작업을 진행했다. 나빌레라 문화센터는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 후반까지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뽑아냈던 (구)나주잠사공장(나주시 금남동)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문화공간이다. 문의 061-339-858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제24회 광주미술상에 권승찬 작가

제24회 광주미술상 수상자로 권승찬(사진)작가가 선정됐다.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배동환)는 7일 광주 YMCA에서 제24회 미술상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수상자로 권승찬작가를 선정했다. 수상작가에게는 창작지원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작가의 있다’(9일까지 하정웅미술관)전을 진행중이다. 권 작가는 수상소감에서 “지역의 원로 선배님들이 주는 큰 상이어서 영광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지역에 연고성 둔 원로·중견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상으로 매년 대상자를 공모해 3명의 후보자를 선정, 현장에서 설명을 들은 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권승찬 작가는 호남대학교 미술대학 순수미술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광주와 북경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가톨릭평생교육원 지하 병커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14회 개인전을 가졌으며 샤프로에서 열린 유카테라스 전 등 국내외 다양한 그룹전과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작가 초대전에 선정돼 미술관과 무등도요를 전시장으로 활용, ‘권승찬

스루우면서도 부담도 큰데 앞으로 작업을 더 열심히 하려는 격려인 것 같다”며 “후배와 선배들 사이의 가로 역할도 충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무등도요와 같은 지역의 오래된 공간이나 장인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전시를 하고 싶다”고 밝히고 “현재 미디어 설치 작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미디어 작업과 페인팅 형식을 결합한 작업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10-2608-273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Falling in winter’

광주 롯데갤러리 1월 9일까지 청년작가 9인전

누구에게나 ‘겨울’하면 떠오르는 풍경들이 있다. 작가들은 어떻게, 눈 내리는 오래된 골목 어귀, 언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봉어빵, 크리스마스의 향수가 가득한 오르골까지. 작가들은 다채로운 겨울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회려함이나 새해를 앞둔 설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작가들은 재개발 구역에서의 계절의 쓸쓸함, 역사적 사실을 품은 장소에서의 겨울 단상 등을 표현했다. 참여작가는 강선호, 이혜리, 임현채, 최순임 이선희 등 젊은 작가 9명이다.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1월 9일까지 열리는 ‘Falling in winter’전은 겨울일상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적인 연말에 관한 소회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풍경은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연말 크리스마스의

강선호 작가는 광주 중흥동, 계림동 재개발 지역의 겨울을 담았으며 노여운은 오래된 골목길의 풍경을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했다. 설박 작가는 먹을 칠한 화선지를 콜라주하는 기법으로 겨울 설산을 보여주



노여운 작 ‘머무르다’

며 이선희 작가는 조각달이 뜬 설원을 배경으로 씨앗을 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상기할만한 장소에서 돌을 던지는 행위를 앵글에 담은 이세현 작가는 제주의 오름, 남평 드들강 유역의 겨울나무를 통해 겨울의 풍경을 묘사

하며 이조흠 작가는 관람객들이 직접 구조물 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큐브 형태의 발광 구조물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 중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돌을 던지는 행위를 앵글에 담은 이세현 작가는 제주의 오름, 남평 드들강 유역의 겨울나무를 통해 겨울의 풍경을 묘사



‘새로운 소리를 듣다’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018-2019  
신양파크호텔

# 겨울축제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